학폭 사안조사에 전문조사관 투입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학년도 학폭예방 · 사안 관리 대책 발표

학폭전담조사관, 생활지도 경력 있는 퇴직경찰 등 유경력자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신규로 설치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부터 사안처리, 피해학생 보호, 관계개선, 법률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및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등의 유경력자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주 35명, 군산 14명, 익산 16명 등 총 100명을 교육지원청별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학교폭력전담기구, 사례회의?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5일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투입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교육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방어자 교육 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담당교사 대체 강사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학교 및 중점학교 확대, 따뜻한 학급 문화 조성을 위한 학급단위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JBNU BK21 FOUR 성과포럼 & 학술연구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개회사가 진행되고 있다.

4단계 BK21 우수 연구성과 공유

전북대, JBNU BK21 FOUR 성과포럼 개최

21개 교육연구단, 대표 연구 성과물 전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5일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지난 한해 사업성과를 되짚어보는 'JBNU BK21 FOUR 성과포럼 & 학술연구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포럼에는 전형민 대학원혁신·연구처 부처장이 지난 한해 BK사업을 통한 성과를, 이어 반도체 화학공학 교육연구단(단장 윤영상) 등 모두 9개 교육연구단(팀)이 각각의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행사장 로비에서는 BK21 사업 21개 교육연구단(팀)의 대표 연구 성과물들을 전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 인력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신진연구자인 최종원(반도체화학공학교육연구단)연구원과 임민우(나노융복합 에너지 혁신 소재부품 인재양성사업단) 연구원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에 선정, 전국 20개 대학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이공계열 게재 논문 중 JCR 상위 10% 이내인 논문이 62.69%, 저널 랭킹 Q1 이내 논문이 71.64%를 차지하는 등 논문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

송철규 대학원장 겸 연구부총장은 "이 사업을 통해 산출된 탁월한 연구성과들은 우리대학이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모든 연구들이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전북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BK21 사업은 2027년까지 7년 간 연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교수 234명, 대학원생 704명, 신진 연구인력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권센터, 도내 대학 인권센터 네크워크 구축 세미나

전주대학교 인권센터는 지난 24일 그랜드힐스턴 전주에서 전북지역 대학 인권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대를 비롯해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13개 대학 인권센터 실무자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전주대 인권센터가 주최한 1차 세미나에 이어 도내 대학 인권센터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전주대 인권센터는 이번 2차 세미나를 통해 도내 대학 인권센터 간 긴밀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구성원의 인권 보호, 인권 감수성 확산, 인권센터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3 특성화 분야 MID 서비스러닝 경진대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 해동학술정보실에서 2023년 특성화 분야 MID 국내외 서비스러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육성 사업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참여학과 학생들이 수행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의 결과의 공유 및 우수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였다.

서비스러닝은 교과목에서 학습한 이론적 내용을 지역사회의 현장에 적용하고 경험해 보는 전주대 대표 경험학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번 대회에서는 총 9개 팀 60여 명의 학생들이 약 1개월간 활동한 결과와 해외 활용 계획을 팀별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대상 역사문화부흥팀(1팀), 최우수상 That is why we are here팀, 교내수공업팀, AI 북서빙팀(3팀), 장려상 전통팀, 자비스팀, 눈누난나팀, 영화방송팀(4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역사문화부흥팀 전은하(역사콘텐츠학과 3년) 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 학과 외에 다른 전공의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어 좋았다"며 "2월에 해외 서비스러닝에 참여해 대만 등불 축제를 전주한옥마을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5일 KT 전남·북 광역본부와 AI/DX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인재 키운다… 전주대, KT와 협약 체결

'2024 글로컬대학' 선정 위한 분야별 산학협력 등 나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5일 KT 전남·북 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와 AI/DX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전주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본관에서 KT 김용남 전남·북 법인 고객 본부장과 박진배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2024년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한 분야별 산·학 협력 △KT의 인재 육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 실무형 AI 인재 양성 상호 협력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도 쾌적한 캠퍼스 환경 구축 협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특성화 사업 발굴 도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KT와의 협약은 전주대가 글로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인재 양성,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고객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KT의 인공지능 능력 시험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도입해 전북지역 AI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글로벌 산학협력 · 국제교류 포럼 개최

필리핀 3개 기관 초청 26일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설비 구축

인력 양성 · 유학생 교류 지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3일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3개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글로벌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인력 양성을 비롯한 대학 간 유학생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4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는 필리핀 기관의 수석과학연구원과, 학장을 비롯해 김용하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략사업팀장, GridOn 곽성운 대표이사,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국제협력사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포럼에 강사로 초청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용하 전략사업팀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3일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3개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글로벌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는 필리핀 기관과 교육 및 다양한 사업 등에서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전주비전대학교는 필리핀 대학 내 한국어 학당을 설치해 필리핀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며 "전주비전대학에서는 KOICA 등 ODA 사업 수주를 통해 필리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효식 교수(신재생에너지과)는"전주비전대학교와 필리핀은 2020년 외교부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지원의 글로벌연수사업을 시작으로 인연을 맺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여러가지 프로젝트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본격

전북하이텍고, 완주군 · 완주산단기업 등 참여 협의체 동참

오늘은 완주산단 기업들과 협약… 교육부 공모 적극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에 본격 나섰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하이텍고등학교는 이날 완주군수실에서 지자체-완주산단기업-교육청-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하이텍고는 2023년 전북글로컬 특성화고를 추진하며 기존의 3개과를 폐과하고, 지능형 공장분야로 개편해 2025년부터 전북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에는 완주산업단지 입주 기업들과의 업무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전북하이텍고등학교 한천수 교장은 "지난해 스마트팩토리분야 학과재구조화를 통해 전북글로컬특성화고로 선정되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통해 향후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7일 '2028 대입제도'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변화하는 대입제도 분석과 대입 준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안내하고, 전일고 김훈 교사가 2028 대입 개편안 확정에 따른 대입 전형별 준비 방안을 설명한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국어는 현재 공통과목(독서·문학)과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1과목 선택에서 공통과목(화법과언어·독서와작문·문학)으로 통합된다. 수학은 공통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으로 시험을 치른다. 영어(영어1·영어2)와 한국사(공통)는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또한 학교 내신에서는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